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뿌리뽑는다

전북교육청, 학생선수 등 65개교 1540여명 대상 실태조사... 내달 14일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을 보여주는 사건 발생으로 학생선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 선수 등록 후 활동하는 개인 학생선수 등 총 3,160명 중 표본조사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축구, 농구, 야구, 태권

도, 수영 5개 종목에 체육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포함해 총 65개교 1,5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로 단순한 실태 파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피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는 방문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 독립된 공간에서 선배 학생선수의 감시와 입력 등 영향력이 통제될 수 있는 공간을 미연토록 했다.

또 사전에 실태조사 실시가 학교운동부 담당교사·학교운동부지도자·학생선수 등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학교운동부 관련자는 조사과정에서 배제된다.

조사 결과 폭력피해가 적발되면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상담기구 및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폭력 정도가 심한 사안이나 조직적 음모·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선수 보호조치,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조치, 가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벌 등 맞춤형 조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도교육청은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학부모, 친인척, 체육교사, 학교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폭력피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 현장점검 시 학생선수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라며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행사되는 폭력적 운동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북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와 (재)전북국제교류센터, (주)엔티씨씨치, 진안농업조합법인, SM유통, (사)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는 29일 산·학·관 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농·생명산업 관련기관 '어깨동무'

베트남 진출 돌파구 마련

전북 농산림업의 베트남 진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도내 농·생명 산업 관련 기관들이 동맹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와 (재)전북국제교류센터, (주)엔티씨씨치, 진안농업조합법인, SM유통 (사)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는 29일 산·학·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문 기관과 농·생명 관련 기업 등이 구체적 역할 분담을 통해 베트남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나선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협약을 통해 전북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는 전북 농·생명 산업 기술지원과 베트남 농업 전문가 육성에 나서고 (주)엔티씨씨치는 특(약)용작물 스마트팜 시설 구축 및 재배, 그리고 진안농업조합법인은 특(약)용작물 건조 및 가공, SM유통은 농축산업용 미생물 발효비료 생산 및 공급 분야를 각각 맡는다.

또 (사)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에서 베트남 현지 사업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하고, (재)전북국제교류센터에서는

베트남 진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K-FOOD와 친환경 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의 인산 및 홍삼에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전망도 매우 밝다. 또한 베트남 식품 기업들은 베트남 내 특(약)용작물을 활용한 자체 기능성 식품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해당 기업이 추진된다면 전북 농·생명 산업 관련 기업의 베트남 시장 개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산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농경제유통학부 교수)은 "이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내외 공동 산학연 구와 전문 인력 양성에 협력하고, 전북 농·생명산업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 단계로 전라북도의 우호협력 지역인 베트남 닥락성(Dak Lak Province)에 전북 농·생명 산업 시스템을 전수하고 지역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북대, 창업 경진대회 성료

전북대학교 창업교육센터(센터장 배준수)와 LINC+사업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2020년 ICT 디바이스랩 창업 경진대회'가 지난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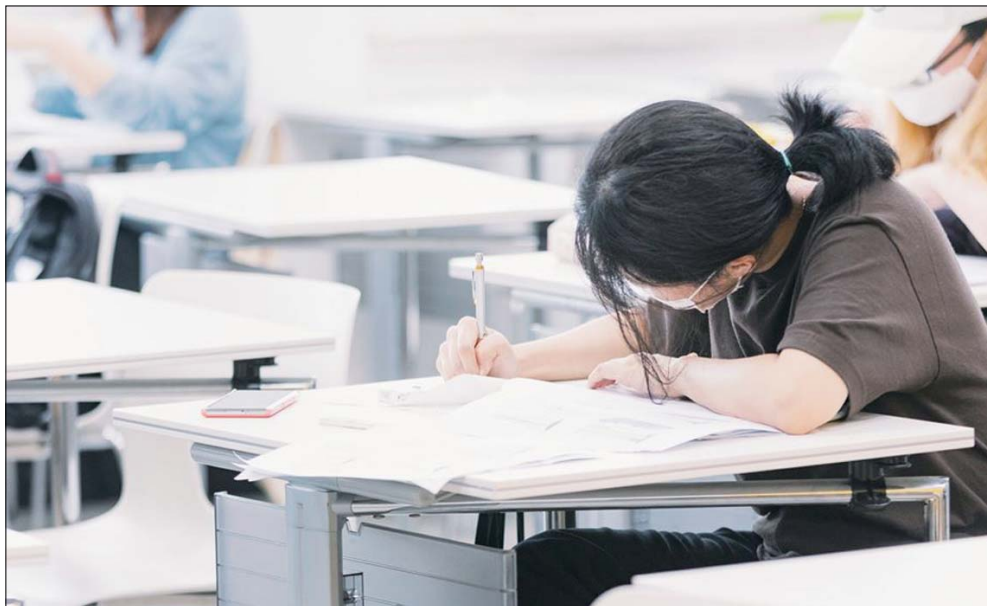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7월 8일부터 진행된 '2020년 ICT 디바이스랩 창업 아카데미'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로 꾸러졌다.

이에 학생들은 3주에 걸쳐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및 검증에 이르기까지 실습형 창업교육을 받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경진대회로 이어졌다.

6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수중 사고 시 GPS기술과 LED 경보음을 통해 위치 파악이 용이한 급속 팽창식 구명조끼'를 발표한 F팀(팀장 신강찬)이 차지했다.

또한 '이상 체온자 식별 및 저장하는 방역게이트'를 발표한 Safe Life팀(팀장 고영훈)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은성기자



2020학년도 2학기에도 전주대는 대면수업이 필요한 실습과목과 1학년 전공과목, 동영상강의로 진행되는 원격수업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모두 플립러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면시험 중인 전주대 학생들

전주대, 플립러닝으로 뉴노멀 시대 선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모형... 학생들과 상호작용 중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플립러닝으로 뉴노멀 시대의 대학교육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대가 제시한 수업모형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구성돼 있으며, 또 수업의 질과 학습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한 On&Off 플립러닝, 온라인 동영상강의와 실시간수업을 혼합한 On&On 플립러닝이다.

역진행 수업 또는 거꾸로 교실 등으

로 불리는 플립러닝은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을 혼합한 블렌드러닝의 한 형태이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에서 학습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강의보다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교수학습 방식이다.

코로나시대에 플립러닝이 불가피한 대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미네르바스쿨은 교육방식의 뉴노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전주대는 2012년에 플립러닝을 처음으로 도입한 후 iClass(Inverted Class)라는 이름으로 특화해 매년 약 300여 개 강의를 플립러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0학년도 2학기에도 전주대는 대면수업이 필요한 실습과목과 1학년 전공과목, 동영상강의로 진행되는 원격수업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모두 플립러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2단계에서는 강의실 밀집도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실제 강의 수강인

원)가 50% 이하인 강좌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혼합한 On&Off 플립러닝, 50%를 넘는 강좌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수업을 혼합한 On&On 플립러닝으로 전환한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거나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강좌가 On&On 플립러닝으로 전환된다.

대면수업에 대해서는 지난 학기 기말시험을 대면으로 치른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생이 많아 강의실밀집도가 50%를 넘는 강좌는 학생들을 적정 인원으로 분반한 후 강의실 대면수업과 온라인 실시간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Off+On 수업으로 운영한다.

/정은성기자

도교육청, 과학·수학·융합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내달 7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북 과학·수학·융합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과학·수학·융합교육 종합계획(2020~2024) 발표에 따라 향후 5년간 전북교육청의 과학·수학·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학교가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수학·융합교육 영역별로 교육전문직, 교원, 현장 전문가 등 40명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T/F)를 구성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이 정책 수립단계부터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제1회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으며, 8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은성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